

# 전경화된 연애, 후경화된 시대, 실종된 ‘청년’들\*

— 이희철(李熙喆)의 『읍혈조(泣血鳥)』를 중심으로 —\*\*

권두연\*\*\*

1. 이희철의 등장과 『읍혈조』의 연재
2. 쓰고자 한 것과 씌어진 것, 혹은 씌어졌다 지워진 것
3. 연애의 전경화에 비해 지지부진한 연애 구도
4. 연애 서사의 이면, 하다만 이야기들
  - 4-1. 만세의 경험과 사라지는 ‘청년’들
  - 4-2. 노동의 경험과 ‘주의자’의 등장
5. 또 다른 후일담

## 국문요약

이희철의 『읍혈조』는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에 『환희』와 『선도자』에 이어 세 번째로 연재된 창작 장편 소설이다. 이 소설은 유학생들의 근대적인 체험 및 연애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1920년대 연애소설의 계보에 속하면서도 (표면적으로만 연애를 구사했을 뿐 삭제) 미달된 연애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 삭제)한다.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남녀 간에

\*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단계BK21 연세대학교 한국 언어·문학·문화 국제인력 양성 사업단'의 지원비를 받았음.

\*\* 이 논문은 2012년 11월 3일 대중서사학회 가을학술대회 <식민지 시대 대중적 지형 그리기>에서 발표된 내용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토론에서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일부는 토론자의 아이디어임을 밝힌다. 논문의 방향을 수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토론자 최미진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사업단 박사 후 연구원

연인 관계로 설정되지만 이들 사이에 애정 갈등이나 삼각관계와 같은 구도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연애를 통한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나 성찰로도 가 닿지 못한다. 오히려 연애서사가 전면화 되면서 흥미롭게 설정된 시대 배경이나 다양하게 등장한 인물들이 후경화 되거나 혹은 실종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소설예고와 연재 사이의 간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애초 예고대로 현대 조선 청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그리고자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달된 연애소설로 귀결된다.

(주제어 : 이희철, 『읍혈조』, 『동아일보』 신문 연재소설, 소설예고, 연애소설-붉은표시  
첨가)

## 1. 이희철의 등장과 『읍혈조』의 연재

1920년에 창간된 『동아일보』는 소설란을 따로 두기는 했으나 창작 장편은 1921년 나도향의 『환희』가 연재될 때까지 주로 우보 민태원과 천리구 김동성의 번안소설이나 단편 위주의 소설들을 게재했다. 그래서 최초의 연재소설인 『환희』에는 “연재장편창작”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고 이광수와 같은 기성 작가를 영입하는 등 본격 창작 장편소설의 시대를 연다. 이희철의 『泣血鳥』(1923.6.2.~1923.10.18, 140회)는 나도향의 『幻戲』(1922.11.21.~1923.3.21, 117회)와 이광수의 『先導者』(1923.3.27.~1923.7.17, 111회)에 이어 세 번째로 연재된 창작 장편소설이다. 연재 당시 1면에는 장백산인이라는 필명으로 『선도자』가 연재 중이었고 염상섭의 『해바라기』(1923.7.18.~1923.8.26, 40회)와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1923.8.27~1924.2.5, 129회)가 후속으로 대기 중에 있었다.

그런데 나도향이나 염상섭과 달리 이희철은 이전에 동인이나 문단 활

등을 한 경력이 없는 새로운 인물이다. 물론 그는 이광수가 아꼈던 오산 학교의 제자로 『무정』을 비롯한 이광수의 자전적 소설에 이희경, Y, H 군 등으로 등장했고 요코하마의 복음인쇄소에서 『창조』의 인쇄를 도우면서 오산인이라는 필명으로 『K선생에게』라는 글을 실은 바 있다.<sup>1)</sup> 그렇지만 이러한 단편적 언급들이 『음혈조』의 창작 활동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근대문학 및 문단 형성 과정에서 현상문예에도 당선된 바 없는 아마추어가 신문 연재소설의 작가가 된 예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백조』의 동인으로 “新進文壇에 이름이 있는”<sup>2)</sup> 나도향조차 당시로서는 “大新聞이요, 民間新聞으로 독보로 자처하던” 『동아일보』에 연재소설 작가로 기용된 것이 “큰 勇斷”으로 간주될 정도였다면<sup>3)</sup> 문단에 전혀 이름이 나 있지도, 창작 활동을 한 바도 없는 이희철이 『동아일보』 연재소설의 작가로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당시 문단에 이름을 날리고 있던 스승 이광수의 추천이 있었다<sup>4)</sup>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이를 신문의 연재소설 작가로 기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을 필요로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무명에 가까운 이희철은 어떻게 『동아일보』 연재소설 작가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하나의 단서로 『환희』가 연재되기 1년 전에 이미 씌어진 소설이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나도향은 『환희』의 첫 회분 앞머리에서 “쓴지가 一年이나” 되어 “지금 다시 펴놔코 읽어보니 참 괴한 곳이

1) 이희철의 문학적 행보에 관해서는 권두연의 『소설의 모델, 독자, 작가』, 『비평문학』 42호, 2011 참조.

2) 『소설예고』, 『동아일보』, 1922.11.20, 4면.

3) 안석영, 『朝鮮文壇三十年側面史』, 『조광』 4권 12호, 1938.12, 148면.

4) 최은희, 『秋溪라는 아호』, 『추계최은희전집-여성전진70년:초대여기자의 회고』, 조선일보사, 1991, 251쪽.

적이 안코 만”아 “남에게 내놋기가 붓그러올만치 푸른 起運이 들고 꽃냄새”가 난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sup>5)</sup> 문단의 신예조차 쓴 지가 일 년이 되는 원고를 두고 그 연재 여부가 결정될 정도였다면 무명의 이희철에게 완성된 소설 원고를 요구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읍혈조』의 연재에 앞서 소개된 소설예고를 통해 이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추정해 보면

주인공 서병호는 재주있고 얼굴 잘생긴 것을 무기로 여러 순결한 처녀와 상류 계급사람을 통략하여 서울로 동경으로 한참 맘껏 들날렸다 그러나 아모 주의도 주장도 업시 오직 여튼 재조와 불타는 듯한 허영심으로 그는 일본 사람 행세도 하여보고 애국지사 행세도 하여보았다 그러하는 동안에도 그는 재산을 엇기와 꽃가튼 처녀들을 통략하기를 말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마춤내 감옥속에 흙물 무든 옷을 낚었고 그리고 나온 뒤에도 또 그 독특한 재주를 부려 일흠과 돈과 처녀를 한업시 통략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운명의 깃이 왔다 그는 전에 사랑하던 모든 사람과 원사회의 배척을 바다 마춤내 제손으로 제 목숨을 끈치 아니할 수 업섯다 이러한 서병호는 분명히 현대조선 청년의 일방면을 유감업시 대표한 사람이다 그는 진실로 시대의 아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조선의 거의 각방면의 내막을 아프고 쓰리도록 잘 그렸다 지사도 나오고 학생도 나오고 로동자도 나오고 일본사람도 나오고 미인도 나온다 이 사람들이 각々 그 특색잇는 성격을 가지고 살아 뵈다.

작자의 불스길 가튼 붓은 모든 것을 그럴 때에 불을 만들지 아니하고는 말지 아니하였다 눈물석근, 우습석근, 한탄석근, 조롱석근, 이 다정다한한 젊고 병든 작자의 사회와 인생에 대한 심각한 비평은 누구나 김흔 흥미와 동감을 가지고 주의할 줄을 밋는다.<sup>6)</sup>

『소설예고』는 집필 방향이나 기획보다는 완성된 작품에 대한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소감을 적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특히 “조선의 거의

5) 나도향, 『환희』 1회, 『동아일보』, 1922.11.21., 4면.

6) 『소설예고』, 『동아일보』, 1923.5.30. 3면. “創作小說 泣음血혈鳥조 李熙喆作 륙월이 일부터 게재”라는 타이틀을 달고 6월 1일 3면에 한 번 더 예고된다.

각방면의 내막을 아프고 쓰리도록 잘 그렸다”라던가 “그 특색있는 성격 을 가지고 살아 뛰다”와 같은 평가는 단순한 소설예고가 아니라 비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다정다한한 젊고 병든 작자의 사회와 인생에 대한 심각한 비평은 누구나 깊은 흥미와 동감을 가지고 주의할 줄 을 맞는다”라는 마지막 구절은 작가에 대한 사적인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어 작가를 잘 아는 이가 썼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요컨대 작가를 잘 알고 있는 이가 완성된 작품을 두고 감상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 작품이 이광수의 추천에 의해 연재되었고, 작품을 쓴 이가 이광수의 애제 자라면 이러한 소설예고를 쓰고 있는 이 역시 쉽게 짐작된다.<sup>7)</sup> 사태가 이러하다면 이희철은 이미 완성되었거나 완성에 가까운 분량의 소설을 들고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신문사의 내부 검증을 통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완성된 원고야말로 추천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기용의 필수조건이며, 추천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충분조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읍혈조』를 포함하여 초기 『동아일보』에 기용된 신진 작가들의 창작 연재소설들이 이미 완성되었거나 어느 정도 완성에 가까운 분량의 소설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으로도 이해된다.

위 소설예고는 이밖에도 『읍혈조』를 읽어 나가는 데 유용한 참조항을 제공하는데 가령 예고대로라면 소설은 서병호라는 “현대조선 청년”을 대표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주인공 김선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서병호라는 한 시대를 농락하는 위악적인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현대조선 청년의 일방면”을 그려내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고에서처럼 “그의 운명의 곳이 왔다

7) 이러한 식으로 의도치 않게 이광수가 글쓴이 이희철을 노출한 사건은 『창조』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다. 신지연, 『이광수 텍스트에 나타나는 동성 간 관계와 감정의 언어화 방식』, 『상허학보』 21집, 2007, 201쪽.

그는 전에 사랑하던 모든 사람과 원사회의 배척을 바다 마춤내 제손으로 제 목숨을 끈”는 것은 서병호가 아니라 여주인공 김선희이다. 서병호는 작가가 설정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회의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버리거나 배신하고 사회로부터 독립운동가로 오인되어 비호받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처럼 작가의 기획과 달리 소설의 여주인공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전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소설이 연애소설을 지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애소설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징후들과 관련해서는 말이다.

이 연구는 예고와 달리 연애소설로 귀결되고 있는 텍스트의 성격에 주목하여 『읍혈조』가 연애를 전면에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연애소설에 실패하고 있는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 창작 장편 연재소설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40회 연재되는 동안 서사 전개에 따른 등장인물들의 비중과 연애의 구도를 분석한 후, 표면화된 연애 스토리 이면에 음각화된 만세 사건과 다양하게 등장했지만 사라진 청년, 노동자, ‘주의자’ 등에 주목하여 연애를 전경화하면서 시대와 인물들을 후경화하거나 실종시켜 버리는 텍스트의 구도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로써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희철이라는 한 무명작가의 작품 『읍혈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물론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 창작 장편 연재소설의 하나로 『읍혈조』가 놓였던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쓰고자 한 것과 씌어진 것, 혹은 씌어졌다 지워진 것

『읍혈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연재 60회까지가 일본을 배

경으로 서병호와 김성운, 김선희의 등장을 다루고 있는 초반부라면 61회부터는 등장인물들이 조선과 일본을 횡단하면서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서병호가 서민국으로 활동하면서 김선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가 하면 김선희가 전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녀의 실패한 연애담이 주를 이루게 된다. 후반부라 할 수 있는 111회부터는 배경이 완전히 조선으로 옮겨지면서 기생이나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생활을 하는 김선희가 서병호와 재회하여 이기상의 재산을 빼돌리려다 병호의 배신으로 결국 자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연재 회수에 따른 대략적인 서사 전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음혈조』 연재회수에 따른 서사 전개 과정

	연재 회수	서병호	김선희	김성운	비고	타소설 연재	
초반	1	1~20	병호등장 룡자와연애			동경/하전희삼랑, 혜자부인, 황빈/룡자의 숙부, 고모	『선도자』 (~7.17)
	2			성운과만남	성운등장	세계사배경서술	
	3	20~43		영각에게편지 (1918.12.2/21)		황빈의성경학교/아다손부인, 선희친구들	
	4			선희에대한성운의짜사랑			
	5	44~60	세사람병실에서만남				
중반	6	61~67	조선민로회발기회및체포및 선희의타락			삼년후, 동경	『해바라기』 (7.18~8.26)
	7	68~71		영각의편지 (1918.3.5~6) 받고귀국		삼년전 조선, 만세사건	
	8	71~86		신영각과연애 및실연		과거연애장면	
	9	87~95		홍순일과연애 및실연		개성, 청년운동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8.27~)
	10	95~102	선희제도일, 인관계로발전	병호와재회, 연		황빈, 사회운동	
	11	103~110	룡자와의가 정생활파탄			109회-1회와 연결	

후 반	12	111~124		이기상의현지 처가되어타락		조선,기생생활	9.27~28및 10.4·10 연재심
	13	124~132	출감한병호와재회,사기를도 모,병호에게배신당함				
	14	133~140		전도사가된성운과재회,이 서방에게폭행당하고자살			

텍스트의 시간적인 배치들을 고려했을 때 1~60회가 하나의 완결된 구조이고 1회는 다시 102회 및 109회의 장면들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1회부터 110회까지는 일정한 구조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스토리 변개는 후반부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데 때마침 후반부에 연재를 쉬고 있는 날짜가 있으며 특히 9월과 10월, 그러니까 연재가 막바지에 이르는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후반부에 가서 스토리가 변개되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애초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연재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111회가 시작되는 후반부에는 스토리가 변경되었을 수 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 이처럼 후반부의 스토리가 변경된다는 점은 같은 지면의 다른 연재소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읍혈조』와 동시기대 1면에 연재되고 있었던 『선도자』 역시 111회에 해당하는 중편의 결말에서 연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sup>8)</sup>

『선도자』는 도산 안창호를 모델로 하면서도 실상 안창호 개인의 전기보다는 안창호가 살았던 시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 경향이 있다. 특히 이 시대는 조선의 당대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측면이

8) 『선도자』의 경우, 상편과 중편에 해당하는 내용만이 연재되고 하편은 더 이상 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광수는 『재생』을 연재하기 앞서 "先導者를 중편까지만쓰다가 경무국의불인가로 중지하고金十字架를 계속하려하였으나 再生을 쓰기로 하였다 그것이 쓰고 심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설예고 재생』, 『동아일보』, 1924.11.8, 4면.

있었다. 조선의 민감한 현실에 대한 언급이 여의치 않았음은 작가 스스로가 이미 소설 속에서 서술한 바 있기도 하다.<sup>9)</sup>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조선의 거의 각방면의 내막을 아프고 쓰리도록 잘 그렸다”라고 평가받았던 『읍혈조』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선도자』의 연재 중단과 함께 『읍혈조』의 스토리 변개는 이미 신문 연재소설에서조차 시기적으로 조선의 현실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sup>10)</sup>

다시 표로 돌아가 서사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소설의 초반부에 등장한 서병호-김선화-김성운은 그 비중에서나 역할에서나 비슷한 분량이었으나 중반에 가면 김성운은 사라지고 서병호와 김선화를 중심으로 서술된 경향이 뚜렷해진다. 후반부에는 거의 김선화를 중심으로만 서술되다 결말에 가까워야 서병호와 김성운이 재등장하지만 이미 소설 내부에서 이들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소설의 초반부에 다양하게 등장했던 인물들은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져 실종되거나 사라지면서 소설의 구도는 마치 소설점을 향해 있는 듯한 역삼각형을 이루게 된다. 문제는 사건의 전개가 후반으로 갈수록 김선화의 비중이 커지면서 신소설류의 애정서사로 빠진다는 데 있다. “현대 조선청년”

9) 『선도자』 51회에서 “나는 그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덕 변혁을 말할 자유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안다 또 그 췌부터의 조선지사들의 정치덕 운동과 여러가지 계획을 다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 유감으로 안다 대개 이러한 말을 다하라면 내뱉은 당장으로 금지를 당할 것이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백산인, 『선도자』 51회, 『동아일보』, 1923.5.17, 1면.

10) 이태훈에 의하면 3·1운동 이후 변화된 일제의 지배정책인 문화정치는 3·1운동을 무마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불과 3년만인 1923년을 지나면서는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태훈,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연세대학교사학위논문, 2010, 4장 참조.

들을 통해 “사회와 인생에 대한 비평”을 시도하고자 했던 소설이 한낱 신소설류로 전락해 간 것이다.

그렇지만 서사 전개 과정을 그린 표에서도 나타나듯 이 소설은 초반부에 서병호와 김성운, 두 남성을 등장시켜 식민지 조선 청년의 두 부류를 전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일본 여성과 살림까지 차린 유학생으로, 다른 한 사람은 구주를 떠돌다 겨우 횡빈에 도착한 아라사 역부로 설정하여 유학생과 노동자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여주인공 김선희가 등장하는 것은 연재가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이다. 이는 소설이 처음부터 김선희를 중심에 두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서병호는 일본 대의사집의 서생으로, 김선희는 미국 여성교사 아다손의 후원을 받는 양녀로, 김성운은 아라사의 노동자로 설정된다. 각기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기생’의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은 일본(정치인)-미국(기독교인)-러시아(노동자)로 각각 대비된다.<sup>11)</sup> 이는 이 소설이 식민지 조선의 알레고리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재독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전면화된 연애 스토리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점이 작가가 애초에 쓰고자 했던, 혹은 씌어졌지만 지워진 “특색”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본다. 예고와 연재 사이의 간극을 읽어내는 작업이 요구된 것도 이 때문이다.

11) 이 소설이 유학생의 기생성에 대해 잘 포착하고 있음은 최미진·임주탁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최미진·임주탁, 『192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유학 체험과 근대적 특성』 『음혈조』와 『진주는 주었스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1집, 2005 참조.

### 3. 연애의 전경화에 비해 지지부진한 연애 구도

『읍혈조』는 두 주인공 서병호와 김선희가 일본과 조선에서 겪은 유학 생활과 종교 활동 및 각종 운동의 체험들 속에서 벌어지는 연애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일본 유학 혹은 각종 운동을 체험한 젊은이들을 연애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환희』와 『해바라기』,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진주는 얻었느냐』를 이어주는 이른바 연애소설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1920년대 신문소설의 경향을 잘 담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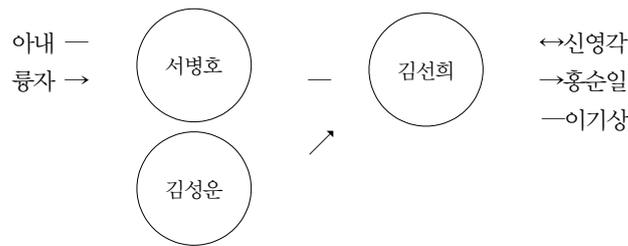
그런데 이 보다 앞서 연재된 『환희』의 소설예고와 비교하면 『읍혈조』의 연애 예고에는 연애와 관련된 표현이나 내용이 그다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는다. 다음은 『환희』의 소설예고이다.

세상에 그평판이 자자하든 “녀장부”도 임의 그 곳을 맞치고 오는 이십일일부터는 신진문단에 이름이 있는 나도향씨의 창작소설 『환희』를 연재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안석주씨의 삽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작품이 엇더케 여러분독자에게 환영이 될지는 그 곳을 마친 뒤가 아니면 아지 못할 것이나 하여간 이 작품은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그 가운데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상을 적극적으로 테현하려는 의지가장한 엇더한 청년과 박명한 신세를 운명에 맡기고 뜻아닌 정조를 팔기는 하나 그의 가슴에 뜨거운 정을 품은 가련한 여성과 얽히는 정서를 중으로 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나이 어린 소녀와 세상에서 구박을 당하다 심히 빈곤에 사무치었으나, 오히려 素志를 꺾이지 않은 그 어떤 젊은이의 애사를 황으로 한 것이나, 인생의 무상과 사조와 변천과 성격의 모순은 이 소설 가운데에 눈물의 痕迹과 哀歎의 인을 그려 놓았습니다.<sup>13)</sup>

12) 최미진·임주탁, 『한국 근대소설과 연애담론-1920년대 『동아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4집, 2006 참조.

13) 『소설예고』, 『동아일보』, 1922.11.20, 4면(19일자에도 동일한 기사)

그렇다면 ‘유학생’의 ‘연애’를 다룬 것으로 읽히지만 『읍혈조』는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로 씌이지 않았거나 그런 의도가 지극히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읍혈조』의 소설예고는 다양하게 등장한 인물들이 “시대의 아들”이며 “특색있는 성격”의 소유자로 등장하여 “사회와 인생에 대한 심각한 비평”을 시도한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비해 소설은 지나치게 연애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간 경향이 짙다. 이 소설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의 연애 관계를 구조화시켜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읍혈조의 연애 도식도〉

서병호와 김선희, 김성운을 축으로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감정 구도로 살펴보면 서로 간에 감정이 확인되는 ↔와 일방적인 감정으로 나타나는 →, 그리고 남녀 관계는 이루어지지만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의, 세 양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흥미롭게도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남녀 인물들은 대개가 연애 관계로 얽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애소설이 취하는 애정 갈등이나 삼각관계 등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가령 서병호는 조선에 아내와 딸이 있지만 그로인해 일본인 여성 룽자와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룽자와 조선인 아내를 두고 고민하는 장면은 좀체 드러나지 않는다. 룽자와 김선희를 두고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서병호를 두고 이 두 여성이

쟁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법도 한데 이러한 상황도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 소설에서 서병호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에게 여성이란 단순히 기생하거나 농락하는 대상으로 설정될 뿐이다.

여주인공 김선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녀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연애 관계들이 발생하지만 이 역시 삼각관계나 애정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가령 첫눈에 선희에게 마음을 뺏긴 김성운은 그녀에게 애정을 호소하지만 조선에 신영각이라는 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여기서 선희는 영각과 성운 사이에서 갈등할 법도 하지만 선희가 성운에게 갖는 감정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설정된 그녀의 종교적 연민에 가까운 것으로 남녀 간의 애정으로 다뤄지지는 않는다. 이 밖에도 신영각이나 홍순일, 리서방(이기상) 등 그녀가 맺는 모든 남녀 관계는 1:1로 성립되거나 일방향적으로 전개될 뿐이다.<sup>14)</sup>

이처럼 『읍혈조』에는 그 흔한 『장한몽』류의 '사랑이나 돈이나와 같은 갈등 상황이라든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든가 하다못해 남녀 간의 애정을 방해하는 최소한의 장애조차 등장하지 않는다.<sup>15)</sup> 굳이 내선결혼의 차원으로 확대시키지 않더라도 일본인 여성 룽자의 경우는 조선인 남성과의 결합을 본격적으로 문제삼을만한 흥미로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sup>16)</sup> 애초에 성립되기 어려운 조

14) 김선희를 중심으로 한 이들 연애는 그녀를 타락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뿐, 연애의 실패를 통해 어떠한 인간 관계에 대한 성찰이나 이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격 연애소설에 미달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창식, 『연애소설의 개념』, 대중문화연구회 편,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8, 19쪽.

15) 위의 책, 13~24쪽.

16) 내선결혼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이상경,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층위』,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심진경, 『일제 말기 연애소설의 성정치』, 『한국문학과 섹슈얼리티』, 소명, 2006; 오오야 치히로, 『잡지 『內鮮一體』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양상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2006 참조.

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노부코<sup>17)</sup>의 장래에 생각이 미쳐서야 비로소 언급되지만 이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 일본인 여성 룽자를 통해서만, 그것도 극히 간략하게 처리될 뿐이다. 요컨대 『음혈조』가 그려내고 있는 소설 속 연애는 이 시기 연애소설들이 지향한 삼각관계나 다양한 애정 갈등들 속에서 청춘남녀들이 각축하는 장면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음혈조』가 이 시기 연애소설들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은 여주인공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여주인공의 타락과 자살은 이 시기 연애소설들의 일반적인 설정이고 『음혈조』 역시 이 문법을 따르고 있다.<sup>18)</sup> 그런데 『음혈조』의 여주인공이 타락하는 과정은 기존 연애소설 속에 등장하는 경우와 다소 다른 차원에서 설정된다. 타락하는 여주인공들은 스스로 배반하거나 그 배반으로 인해 심각한 결함을 갖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소설에서 김선희는 배반당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성경학교 출신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녀는 만세 사건에 뛰어들었다가 연애에 실패하고 동시에 기생처가 사라지자 호구책을 위해 서병호나 이기상과 관계 맺는다. 그렇다면 그녀의 타락이란 결국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 즉 기생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녀가 타락 혹은 전락하는 계기들은 그녀가 믿었던 남성들

17) 이 이름과 관련하여서는 대중서사학회의 발표문 『1920년대 징후적 텍스트로서 이희철의 『음혈조』 읽기』 4장 ‘두 명의 노부코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흥미롭게도 이 이름은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일본어로 불린다는 점에서,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이광수의 『혈서』에도 동일한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지면을 통해 작가의 개인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보다 심화시켜 다루고자 한다.

18) 이 시기 소설을 연애의 입장에서 접근한 선행연구는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서를 참조했다.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3),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소명출판, 2007),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소명출판, 2007),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역락, 2011).

로부터 비롯되거나 제공된다.

여기서 소설예고를 다시 상기시켜 보면 이 소설은 애초에 서병호를 통해 “현대 조선 청년의 일방면”을 그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억지스럽게 중도 개입된 연애와 매끄럽게 결합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 소설이 표면으로만 연애를 지향했을 뿐, 실제로 연애소설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못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로 분석된다.

#### 4. 연애 서사의 이면, 하다면 이야기들

##### 4-1. 만세의 경험과 사라지는 '청년들'

김선희의 타락과 그 연인들의 배반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에 3·1만세 운동과 같은 사건이 놓여 있음은 주목된다. 다음은 그 발단이 되는 편지의 내용이다. “일천구백십팔년” “삼월 초닷신가 초엿새”에 김선희는 조선에 있는 연인 신영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 한통을 받고 귀국을 결심한다.

선희씨 졸업시험은 이미 다 쫓나고 이 뱃칠동안 펍 즐겁게 지내실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 조선에서는 상하가 뒤집습니다 아니 뒤집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전민족이 피를 흘리랴고 합니다 각학교는 모다 문을 닫칩니다 조고마한 아해들도 자유를 부르냈습니다 당대의 조선명사라는 명사는 모다 경관에서 잡혔다합니다 그중에는 귀족도 잇다합니다 선희씨 사실은 나도 지금 경관의 손을 피하여 어느 집에 숨어서 이글을 씁니다.....아 어데서 쏘만세소리가 들립니다 하여간 서울에 도라오시면 소격동 그집으로 나를 차차주십시오 차나서업거든 잡혀간줄 아십시오....마즈막 될년지도 모르는 이글을 선희씨께 애인 영각은<sup>19)</sup>

졸업을 얼마 앞두고지 않은 상황에서 20여년을 보살펴준 아다손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귀국한 선희는 부산진에서부터 서울 남대문정거장에 내리기까지 “올려오는 만세소리에 모다 가슴을 두근”거린다. 반면 함께 기차를 타고 온 일본인들은 조선인과 대조적으로 조소를 드러내며

『저러케 써드러만 가지고 무엇이 됴닛가…도-모 조센진와 바가테스네』

『참 그래요 우리 일본사람일 것 갓흐면 저러친 안치요 죽을 셈 잡고 한번 피를 흘려해보지요』<sup>20)</sup>

라며 비웃는다. 그렇지만 “흰옷입은 조선사람들이 털도가에 모혀 서서 량손만 들고 만세부르는 광경을” “불쑈에 울고 싶은 심정을 느낀 선희는 “눈을 뒤별개 가지고 칼을 제가닥 거리며 왔다갔다”하는 순사들 사이에서 “모다 쓴도자(調子) 얼굴에 열드리 올라서” “어데서 『위야』하는 소리”에 이끌려 자신도 만세를 부른다. “기마순사가 달”니거나 “총맨 보병이” “한세 구보로” 오는데도 아랑곳없이, 이날의 풍경에 대해 서술자는 다음 날 연재분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만흔 의미에서 일천구백 십팔년처럼 조선민족에게 흥분을 이르기개한 시대는 업섯다 잘살아야 되겟다하는 의식에 가슴을 태우면서도 잘살수업는 그들의 운명 그리고 새문명과 새 사상에 대한 그들의 동경(憧憬)은 오래동안 무기력하게 살아 오던 그들의 심리덕 반동(心理的 反動)으로 조커나 언짢커나 무슨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려고 들지 아늘 수 업섯다. 죽어도좃타 다만 그들은 시원히 소리만 한번 질너보아도 거괴에서 더 만족한 것이 업섯다 같이 무어나 총알이 무어나 그들은 자괴라는 생명의 존재까지 이지버리고 가슴의 피는 쥘코 사지의 살은 쥘는 것이 옳다<sup>21)</sup>

19) 이희철, 『음혈조』 68회, 『동아일보』, 1923.8.11, 4면.

20) 이희철, 『음혈조』 70회, 『동아일보』, 1923.8.13, 4면.

21) 이희철, 『음혈조』 71회, 『동아일보』, 1923.8.14, 4면.

“일천구백십팔년.” “삼월 초닷신가 초엿새”라고 언급한 이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백하다.<sup>22)</sup> 『재생』에서처럼 3·1은 “독립 운동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식어서 나라나 백성을 위하여 인생을 바친다는 생각이 적어지고 저마다 저 한 몸 편안히 살아갈 도리만 하게 된”<sup>23)</sup>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읍혈조』에서는 “군중의 한 복판에서 펄럭거리는 깃사발을 바라보며 얼마나 만세를 고향쳤는지 모른다 뒤로 깃마순사가 말바굽을 저벅거리며 지나가는 것도 무섭지 안았다 또 말탄 헌병이 와서 칼자루를 잡고 위협을 하여도 조금도 두렵지” 않은 생생한 경험으로 설정된다.

3.1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경우 김선희처럼 의도치 않게, 우연치 않게 장터에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열차 안에서 만세 장면을 목격하거나 만세 사건에 연루되거나 합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sup>24)</sup> 사건 당시 만세 소리를 듣고 합류했다고 증언하거나 회고하는 사례들이 상당하며 이러한 만세의 외침은 남녀 학생 및 청년은 물론이고 기생과 같이 사회적으로 은폐된 존재들조차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한다.<sup>25)</sup> 그리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남녀’로 만날 수 있었다. 김선희 역시 그러한 1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동경서 류학생들이 독

22) 이보다 앞서 김선희와 신영각은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고 그 시간들은 대체로 1918년 11월로 설정되어 있다. 때문에 이 날짜는 실제 소설 속 시간들과도 맞지 않는다. 이 소설은 시간 순으로 배열되지 있지 않고 사건 전개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시간 구상을 할 수 있는 작가가 유독 이 장면에서의 날짜를 엉터리로 적고 있다는 것은 의도된 ‘오류’로 판단된다.

23) 장백산인, 『재생』 37회, 『동아일보』, 1923.12.15, 3면.(각주추가)

24) 천정환, 『소문(所聞)·방문(訪問)·신문(新聞)·격문(檄文):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주체성』, 『한국문학연구』 36호, 2009 참조.

25) 3·1운동으로 이 시기 유학생·청년론은 학생·청년론으로 전유되고 이후 ‘학생’은 독자적인 주체로 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소영현, 『3·1운동과 ‘학생’·‘학생·청년’의 담론적 재편성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39, 2009 참조.

립선언사건으로 뒤슬었다 하는 말을 드른 쎄에도 제반소식에 밝지 못한”<sup>26)</sup> 독실한 기독교인에 불과했지만 연인 신영각의 편지를 받고 귀국한 그날로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적극적으로 청년회나 부인회에 참여하는 인물이 된다.

학교에 가라고 자기집 큰문을 나설 적에도 나갈가 말가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조선여자의 심리로 종로네거리에 손을 들어 만세를 부를 쎄에 그들의 흥분됨이야 엇더하랴 그보다도 이 세로운 운명을 개탁키 위하여 젊은 남녀가 모힌 자리에 그들의 가슴에는 쏘한 줄기 무슨 피가 썩엿스랴/그들은 남녀가 일즉이 그러케 가치 모혀 안저 잘아볼 만한 운명을 만나지 못한 몸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남녀가 가치 모혀 안저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뿌릴만한 즐거운 세상을 맞난 것이다<sup>27)</sup>

만세 사건은 김선희를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고 만세의 경험을 통해 김선희는 정치적으로 각성될 뿐 아니라<sup>28)</sup> 신성한 연애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한다. 선희는 첫 연인 신영각으로부터 농락당한 후 개성 애국동지회에서 만난 홍순일과 다시 연인이 되지만 이 역시도 그녀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부부동반으로 유학 가 버리는 홍순일의 배반으로 끝나게 된다. 앞장에서 다룬 바, 일반적으로 연애소설에서 배신과 배반은 주로 여성 주인공의 몫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소설에서는 흥미롭게도 남성 지식인 특히 ‘청년’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선희의 첫 연인이었던 신영각은 음악을 배우고 예수교를 믿는 “착한 청년”이고 홍순일은 순결하고 깨끗한 애국청년으

26) 이희철, 『음혈조』 68회, 『동아일보』, 1923.8.11, 4면.

27) 이희철, 『음혈조』 87회, 『동아일보』, 1923.8.30, 4면.

28) 3·1만세운동을 통해 정치적인 각성을 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김산으로 잘 알려진 장지락에게도 나타난다. 님 웨일즈 · 김산, 『아리랑』, 동녘, 2005(개정3판), 85~107쪽 참조.

로 컬리지를 다니고 이후 미국유학까지 가는 인텔리이다. 이들 청년들은 김선희와의 연애를 위해 설정되었고 연애의 실패와 함께 사라진다.<sup>29)</sup> 만세사건을 통해 등장했던 학생-청년들이 만세 후에는 사라졌던 것처럼 말이다. 소설은 실종된 청년들의 존재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부동반으로 미국유학을 떠난 홍순일과 상해 독립신문을 배포하던 개성 애국부인회 여성동지들,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황빈의 성경학교 동료들은 모두 미국과 조선, 일본과 상해를 경유해 가며 식민지 근대를 횡단하고 있었던 식민지의 조선 청년들의 한 모습임에 분명하다.

#### 4-2. 노동의 경험과 '주의자'의 등장

이 소설은 초반부에 서병호와 함께 김성운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다이쇼기의 일본과 함께 세계정세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한다. 특히 서병호가 기생하던 일본 대의사인 하전희삼랑과 같은 정치에 광적인 열정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일본 내 정치적 분위기를 실감나게 그려간다. 서병호에 이어 등장한 김성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그가 겪은 시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대한제국, 즉 구한말을 포함하여 구주를 넘나드는 세계정세를 담고 있는데 고국을 떠난 지 23년, 마흔이 된 김성운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해 무려 5회에 걸친 분량을 할애한다. 17세에 조선을 떠나 아라사와 토이기를 방황하다 결국 아라사 군함의 화부가 되어 17년이나 해상생활을 하지만 불행히 인도에

29) 선희와 영각의 연애는 68회에서부터 86회까지 근 18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서술자는 영각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소설에 영각이란 이름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86회/1923.8.29)

서 병이 들어 일본으로 오게 된 그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한편의 세계사 서술에 가까울 정도이다.<sup>30)</sup>

김성운에 한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은 일본과 한나라이 되어서 외국에 나와있는 조선 사람은 모다 일본령사관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에 그는 그만 “울고 씩”어진다. 병이 나아 경찰서에서 그를 조선으로 보내려 하자 그는 “조선이 내고향가치 생각이 되지 안코 후에 나의 도라갈 고향은 쏘다른 곳에 있는듯하”여 “죽어도 조선은 아니간다”하여 도착한 곳이 횡빈이다. 마침 그가 도착하기 한 달 전, 아라사에서는 “시월혁명이 일어나 수만흔 사람들이 과격파를 피하여 외국으로 피란하는 새였다” “경영하는 회사는 모다 결단이 나고 은행은 문을 닫치게 되었으며 령사관까지 유지 곤란으로 폐지할 운명에 이르”고 보니 지금까지 “아라사사람의 덧택”으로 살아오던 그는 이제 거지 신세를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밥술이나 얻어 먹어볼까 하여 찾아간 곳이 김선회가 있는 미국 여선교사 아다손의 집이다.

소설에서 김성운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조선을 떠난 해가 1894, 즉 갑오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갑오년에 나라를 위한 ‘큰 일’을 하기 위해 조선을 떠난 청년이라는 설정은 흥미롭다. 더욱이 그가 노동자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은 이러한 흥미를 배가한다. 개항 이래 해외로 나가는 경로는 무역을 제외하면 유학이나 노동이주가 대부분이다. 둘은 목적이나 방식에서 다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기가 힘들지만, 김성운의 경우처럼 공부를 목적으로 나갔다가 노동자가 되는 예는

30) 당시 『동아일보』는 이런 식의 세계정세 혹은 세계사와 관련된 기사를 상당히 실고 있다. 이 가운데 1917년 혁명 이후의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과격파’로 불리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기사들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의 세력 갈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윤덕영,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호, 2010 참조.

유학과 노동을 동시에 다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sup>31)</sup>

특히 『읍혈조』의 경우에는 작가 이희철의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논의될 수 있기에 그러한 측면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이광수에 의하면 이희철은 큐슈의 후쿠오카 탄광 노동자로 일한 바 있다.<sup>33)</sup> 전영택과 김동인도 그가 요코하마 복음인쇄소의 인쇄노동자로도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sup>34)</sup> 주지하다시피 요코하마의 복음인쇄소는 한글 활자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곳이다. 성경을 비롯하여 『창조』, 『학지광』, 『현대』와 같은 각종 동인지, 학회지들이 여기서 인쇄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곳에 염상섭도 머물렀던 적이 있음을 상기한다면 요코하마 복음인쇄소의 존재는 좀 더 유의미하게 다가온다.<sup>35)</sup> 소설의 배경이 동경이 아니라 횡빈으로 설정된 이유도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sup>36)</sup> 유학생들의 중심이었던 동경에 비해 횡빈이 노동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하다는 인상을 환기시킨다면 소설에서 서병호가 동경으로 가고자 한 이유 역시 이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유학생 글쓰기와 유사하면서도 유학생의 폐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데서 찾아진다.<sup>37)</sup>

31) 이 둘을 함께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들의 이주나 이동은 1880년대 이래 계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강제병합이후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조선인노동자의 일본 내지로의 유입은 일본 제국주의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한다.

32) 이 소설이 자전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점에서 작가 개인의 체험적인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면이 필요하다.

33) 춘원, 『H군을 생각하고』, 『조선문단』 2호, 1924.11, 3쪽.

34) 늘봄, 『남은말』, 『창조』 6호, 1920.5, 75면 및 김동인, 『문단회고-3無虎洞의 삶(1)』, 『매일신보』, 1931.8.23.~9.2(『김동인전집』, 조선일보사, 1988, 312쪽)

35) 김윤식,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100면. 염상섭의 시 『법의』(1920)가 이 때 씌어진 것이다.

36) 그런 의미에서 염상섭의 『만세전』이 횡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37) 최미진·임주탁, 『192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유학 체험과 근대적 특성-『읍혈조』와

다음 예시된 세 인용문은 노동자에 대한 유학생의 시선과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시선을 드러낸 대표 사례들이다.

- 1) 머리 약간 상투튼 촌사람들이 여기저기 모혀서 와글와글하는 파리씨의 습격을 받으며 저녁밥 먹는 것이 병호의 눈에 데일 몬저 보였다 그 광경이야 다른 나라사람이 보면 비웃고 춤밧고 지낼 일이오 갓흔 조선사람이 보면 스스로 저주하고 부스러워 얼굴을 못들 일이다 그러나 병호는 그런것에 대하여 『저런 개 갓흔 놈들 모다 할락궁들 이로우나』하고 비웃고 심흔 생각 외에는 아모 감각이 업섯다<sup>38)</sup>
- 2) 일본말 한마디도 모르는 것들이 일본 와서 로동을 한다면 엇더케 합닛가 천대나 지스리밧고 매나 엇어맛지요 저는 혹 배에 나가서 조선로동자들이 일본 사람에게 구박밧는 것을 보면 눈물이 다 나올려고 하지오...그러구 쏘 일본 사람들이 조선로동자를 어딜 쓰라고 하나요 그러닛가 모다 거지가 되어 이 치운 겨울에도 다 썩러진 현 누더기들을 입고 다니지요<sup>39)</sup>
- 3) 오래간만에 아릿다운 동포녀자를 맞나는 이 자리에서 주린 창자를 붓들고 구스스러히 일스자리 하나 생기기와 그럿치 안으면 돈뭇푼 주기를 기다리는 자기를 쳐다볼 생각하니 그는 썩가 쪼는 듯하엿다 그러고 『오늘 여기서 일스 자리를 못어드면 쏘 어데가서 구해될가』하는 것을 생각할 썩에는 스스로 창자를 파버리고 되는대로 죽고 심헿다 이런 심정을 모르는 죄중은 김성운의 맘과 관계업는 산세계와 갓חת다 저들은 봄동산에 새와 가치 웃고 즐긴다<sup>40)</sup>

소설의 첫 장면에서부터 1)서병호의 시선을 통해 혹은 2)김선희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조선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하나같이 부정적이다. 이는 3)에서와 같이 아름다운 조선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린 창자를 붓들고 일자리를 걱정하는 노동자 김성운이 느끼는 정서와 대비된다.

『진주는 주었스나』를 중심으로, 앞의 책 참조

38) 이희철, 『음혈조』 2회, 『동아일보』, 1923.6.3, 4면.

39) 이희철, 『음혈조』 50회, 『동아일보』, 1923.7.24, 4면.

40) 이희철, 『음혈조』 26회, 『동아일보』, 1923.6.27, 4면.

유학생들에게 노동자들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면 연민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에 불과하지만 김성운에게 있어 그들은 “판세계”의 “봄동산에 새”처럼 느껴진다.

한편 이 소설은 또 다른 형태로 ‘노동(자)’의 문제를 다룬다. 이른바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로회(朝鮮民勞會)”라는 단체의 결성이 그것이다. 다음은 서병호가 서민국(서국민으로도 혼동됨)으로 이름을 바꿔 “사회운동자”를 자처하며 정우택을 비롯하여 창덕, 길선과 같은 청년을 모아 단체를 결성하고 발기회를 가지는 장면의 일부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향한 로동자를 무슨 방법으로써 구원하겠습니까 요사이 도 신문을 보면 조선로동자가 맹리 괴천명식 일본으로 건너온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죽을곳을 차자 드러웁니다

『아! 뜻있는 여러분이여 우리는 손을 꼭고 묵々히 안저 잇습수 업습니다 소위 주의자(主義者)로 자임하는 우리들은 위선 불상한 조선로동자를 위하여 매일 정을 발하지 안을수 업습니다 매일사업에 착수하지 안을수 업습니다……』<sup>41)</sup>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시 제일조선인 노동자는 매년 증가했다.<sup>42)</sup> 그러나 “괴천명식 일본으로 건너온다”는 말이 과장은 아닐 것이다. 후쿠오카는 관부연락선의 종착으로 일본 노동시장에 정보가 없는 조선인들이 탄광노동자로 첫발을 내딛는 곳이었고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오사카, 고베 등지에서 조선노동자들의 수도 급증했다. 이에 반해 조선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했고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들과 차별되었다.<sup>43)</sup>

물론 인용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은 ‘사회운동자’를 빙자

41) 이희철, 『음혈조』 63회, 『동아일보』, 1923.8.6, 4면.

42) 정혜경, 『일제시대 제일조선인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1 참조.

43) 김인덕, 『식민지시대 제일조선인운동 연구』(국학자료원, 1996) 및 위의 책.

한 청년들의 단순한 말놀이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으로 이주해 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교적 생생한 증언들인 셈이다. 서병호를 대표로 하는 조선민로회(朝鮮民勞會) 청년들은 “명예심”에 급급하여 “소위 주의자(主義者)로 자임”하면서 『신세계』라는 잡지나 만들며 “현재 동경에 와있는 조선인 유산계급”의 돈을 노릴 뿐 노동자를 위한 결의나 목적을 애초에 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들 단체의 주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상대측 조선인상조회(朝鮮人相助會) 간사의 요구에 다음과 같은 무의미한 말만 되풀이하게 된다.<sup>44)</sup>

『로형은 로국에 대한 로동운동(勞動運動)의 역사를 아르지닛가……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진 레닌과 풀네하노무도 그 근본덕 정신에 엇더한 차이가 잇기 때문에 드디어 불쉐빅키(多數派) 멘쉬비키(少數派)란 두파로 분열이 되었습시다

『그와가치 당신네나 우리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진 두가지 단테를 조직한 다사 그 근본덕 정신 또는 수단(手段)에 엇더한 상이덤이 잇다면 별로 괴이하게 생각할것이 아니고 도로혀 당연한 일로 념일것이지요』하고 의긔 잇게 말을 매쳤다<sup>45)</sup>

흥미로운 것은 이 발기회에 참여한 청년들의 모습인데 서병호처럼 ‘사회운동자’를 자임한 이들 외에 “『쏟조와』 량반”과 조선인상조회 간사 청년 등이 등장한다. 전자는 “그야말로 못처름 오신 돈잇는 유지량반이 다 본래 엇던 고을 군수로 잇다가 만세스소리에 감동이 되어 고귀한 자리를 내여노코 자유로운 동경을 차자온 그러한 뜻잇는 량반”으로 후자

44) 이 시기 일본지역에서 결성된 조선인 단체 가운데 노동과 관련된 단체로는 동경노동동지회(도쿄, 1917), 경도조선인노동공제회(교토, 1920), 동양연합노동공제회(후쿠오카, 1922), 조선勞友화합회(효고, 1922), 관서조선인노동협회(오사카, 1922) 등이 있다. 『일제시대 재일조선인민족운동연구』 3장의 표2-1, 121쪽(원자료:姜徹, 『在日朝鮮人史年表』, 雄山閣, 1983) 참조

45) 이희철, 『음혈조』 65회, 『동아일보』 1923.8.8, 4면.

는 “평배한 세계사조(世界思潮)의 조류에 응하여 신생명을 욕구하는” “자각”에서 “무산자(無産者) 즉 노동자를 위하여 단절(斷絶)의 원심력(遠心力)이 되자고 또는 지식덕 전위(智識的前衛)가 되자고” 단체를 만든 청년으로 묘사된다. 이들은 3·1운동 이후 사회주의로 전향하고 있는 조선 유학생들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46)</sup>

## 5. 또 다른 후일담

김성운은 조선을 떠날 때부터 자신은 조선노동자와 구분되는 유학생이라며 강변하는 서병호와 대척점에 놓여있는 인물이다. 작가가 서병호의 이야기 다음에 김성운을 배치하고 있는 이유로 짐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sup>47)</sup> 서병호나 김선희와 달리 노동자로 설정된 김성운은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전락하지 않고 전도사가 되는 긍정적 인물이다.<sup>48)</sup> 그렇다면 작가가 유학생을 통해 비판하고자 한 기생성이나 부유성이 극복될 일말의 여지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병호나 김선희가 배우고 익힌 근대적 학문이나 종교적 지식은 그들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에 비해 적어도 비루하고 노동자로 방황하던 김성운이야말로 종교적 삶에 귀의하여 새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46) 특히 오스기 사가에나 요시노 사쿠조 등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으로 빠진 유학생들의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유학생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상일, 『제국의 시선』(새물결, 2004) 참조.

47) 이 소설의 시공간적 구조가 사건 전개와 관련되는 양상은 인물들이 만나고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는 점에서 보다 중요하다.

48) 포스터의 패터이론에 의거하면 이 인물은 저급한 인물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상승하는 유형으로 이해된다. E.M.Poster, 『소설의 양상』, 이성호 역, 문예출판사, 1993 참조.

『읍혈조』는 1920년대 초반 신문 연재소설들이 지닌 특징들, 특히 주인공들의 연애를 중심으로 하여 유학생들의 근대적인 체험 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로운 양상을 띤다. 우선 이 소설은 남녀의 연애 이야기가 전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된 연애소설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애의 진경화-시대의 후경화-청년들의 실종'이라는 구도를 통해 소설예고와 연재 사이의 간극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이 시기 『동아일보』는 신문 연재 이전에 소설예고를 통해 독자들에게 소설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했는데 『읍혈조』는 이때 예고된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작가가 애초에 쓰고자 했던 것 혹은 연재 이전에 이미 씌어진 것과 신문 연재 당시 씌어진 것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설이 성공적인 연애 서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연애소설도, 그렇다고 지식인 소설도 아닌 어정쩡한 '포즈'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 '포즈'야말로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 창작 장편 연재소설의 특징을 잘 드러낸 것으로 간주된다.

『환희』를 필두로 한편에서는 대중 연애 서사를, 다른 한편에서는 『선도자』와 같은 지식인 청년을 그린 소설을 소개했던 『동아일보』는 『선도자』의 연재를 중단하게 된다. 이 시기 『동아일보』는 내부 필진들의 세력분화와 갈등, 외부적 압력으로 창간초기와 다른 성향들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영향이 신문연재소설에까지 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고와 다르게 전개된 『읍혈조』의 연애 서사는 이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기에 충분하다고 간주된다. 요컨대 『읍혈조』의 변개된 스토리는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 신문 연재소설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한편 『읍혈조』는 3·1운동의 경험과 연애가 교차되면서 그 연애가 필

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sup>49)</sup> 그런 점에서 1920년대 전후를 배경으로 하면서 3·1운동 이후를 다룬 이른바 '후일담 소설'의 면모를 지닌다. 마침 시기적으로 『만세전』(『묘지』, 『신생활』, 1922.7~9/개명 및 개작: 『시대일보』, 1924.4.6~6.4)과 『재생』(『동아일보』, 1924.11.9~1925.9.28) 사이에 놓인다는 점에서 또 다른 후일담 소설의 하나로 읽힐 수 있다. 특히 『읍혈조』의 이희철이 이 작가들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체험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되기에 유용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9) 이해령은 『재생』과 같은 3·1운동의 후일담 소설들이 3·1운동을 연애로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좀 더 명확하게 연애가 3·1운동의 페티시(fetish)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해령, 『正史와 情史 사이: 3·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화사 연구』 40호, 2009, 253~4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나도향, 『幻戲』, 『동아일보』, 1922.11.21.~1923.3.21, 117회.  
이광수, 『先導者』, 『동아일보』, 1923.3.27.~1923.7.17, 111회.  
이희철, 『泣血鳥』, 『동아일보』, 1923.6.2.~1923.10.18, 140회  
춘원, 『H군을 생각하고』, 『조선문단』 2호, 1924.11.  
늘봄, 『남은말』, 『창조』 6호, 1920.5.  
김동인, 『문단회고-3無虎洞의 삶(1)』, 『매일신보』, 1931.8.23.~9.2  
안석영, 『朝鮮文壇三十年側面史』, 『조광』 4권 12호, 1938.12.  
『김동인전집』, 조선일보사, 1988.  
최은희, 『추계최은희전집-여성전진70년:초대여기자의 회고』, 조선일보사, 1991.

### 2. 논문과 단행본

- 권두연, 『소설의 모델, 독자, 작가』, 『비평문학』 42호, 2011, 35~79쪽.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여성』, 역락, 2011.  
김윤식,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소명출판, 2007.  
김창식, 『연애소설의 개념』, 대중문학연구회 편,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8.  
님 웨일즈·김산, 『아리랑』, 동녘, 2005(개정3판).  
소영현, 『3·1운동과 '학생·학생·청년'의 담론적 재편성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39, 2009, 275~308쪽.  
신지연, 『이광수 텍스트에 나타나는 동성 간 관계와 감정의 언어화 방식』, 『상허학보』 21집, 2007, 181~221쪽.  
심진경, 『일제 말기 연애소설의 성정치』, 『한국문학과 섹슈얼리티』, 소명, 2006.  
윤덕영,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호, 2010, 9~49쪽.  
이상경,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층위』,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이태훈,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2010.

-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 소명출판, 2007.
- \_\_\_\_\_, 『正史와 情史 사이: 3·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화사연구』 40호, 2009, 230~275쪽.
- 정혜경, 『일제시대 제일조선인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1.
- 천정환, 『소문(所聞)·방문(訪問)·신문(新聞)·격문(檄文):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주체성』, 『한국문학연구』 36호, 2009, 109~154쪽.
- 최미진·임주탁, 『192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유학 체험과 근대적 특성』 『읍혈조』와 『진주는 주었스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1집, 2005, 331~359쪽.
- \_\_\_\_\_, 『한국 근대소설과 연애담론-1920년대 『동아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4집, 2006, 245~291쪽.
- 한상일, 『제국의 시선』, 새물결, 2004.
- 오오야 치히로, 『잡지 『內鮮一體』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양상 연구』, 연세대석사학 위논문, 2006.
- E.M.Poster, 『소설의 양상』, 이성호 역, 문예출판사, 1993.

## Abstract

前景化された恋愛、後景化された時代、失踪した「青年」たち  
—李熙喆の『泣血鳥』を中心に—

クオン・ドゥヨン (延世大学校)

李熙喆の『泣血鳥』は1920年代初、『東亜日報』に『幻戯』と『先導者』に続く第三作目として連載された長編小説だ。この小説は留学生たちの近代的経験および恋愛を取り上げているという点から、1920年代恋愛小説の系譜に属しつつも表面的には恋愛を扱っているだけで、恋愛小説として十分な形態をなしていない。その点に注目し、本研究は前景化された恋愛の語りの裏面に後景化された時代と、様々な形で登場しているが、失踪してしまう登場人物、とくに青年たちの姿としてテキストを構造化し分析することで小説連載予告と連載との間に生じた間隙を究明しようとした。この作業を通じ、当初、現代の朝鮮の青年を主人公として立て、時代を描こうとした『泣血鳥』がそうした方向へ進展できず、恋愛小説に帰結するしかなか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Key Words : 李熙喆(イ・ヒチヨル)、『泣血鳥』、『東亜日報』新聞連載長編小説、小説予告、恋愛小説)

학술대회 발표일: 2012년 11월 3일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기획발표

투고일: 2012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2012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2012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0일 게재확정